



12 중촌마을 '두리샘 설화'

오랜 세월 척박했던 땅. 그만큼 사람들의 세상 살이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강하고 질긴 태도와 능력으로써만 세상은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이야기는 쌓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산한 삶을 이어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밝고 슬프고 아름답고 비극적이어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설화는 그렇게 오래도록 쌓여 전해져오고 있다.

전남 고흥군을 다시 찾는 이유다. 지난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고흥의 이곳저곳 땅을 밟으며 다양한 이들을 만난 스포츠동아는 올해에도 그곳으로 간다. 사람들이 전하는 오랜 삶의 또렷한 흔적을 확인해가며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려 한다. 매달 두 차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다.



이제는 말라버려 터만 남은 두리샘. 예전엔 겨울에 따뜻한 물이 솟아 마을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흥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옥황상제 일곱 딸들의 피부병 치유한 '두리샘'

보름달 뜬 밤에만 허했다는 신비의 샘물
윗샘은 상수원 역할, 아랫샘에선 빨래를
지하서 올라온 샘이라 계절마다 온도차
30~40년전까지도 마을 사람들 식수로

샘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고, 강과 바다를 이루는 근원이 된다. 고흥군에는 마을마다 크고 작은 샘이 있다. 예부터 사람들은 사시 사철 샘에서 솟아나는 물로 삶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부분의 샘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래도 샘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물길을 유지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 두리샘

고흥읍 고흥리 중촌마을은 뒤로는 산, 앞으로는 논과 밭의 평지로 이뤄져 있다.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두리샘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솟아나 오래 전부터 마을 사람들의 삶을 도왔다.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살아온 강덕원(82) 씨는 두리샘에 얽힌 추억이 많다.

“내가 젊을 때, 그러니까 30~40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여자들이 두리샘 물을 길러다 음식도 하고 식수로도 먹었지. 여름에는 샘 주변에 모여 시원하게 씻기도 했고, 만약 샘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것이야.”

사람들이 의지하는 곳에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 마련이다. 두리샘에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와 그의 일곱 명의 딸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옥황상제의 딸들은 어느 날부터 피부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극심한 가려움에 밤잠을 설쳤고, 유능하다는 의원을 찾아봐도 병을 낫게 할 치료법은 오리무중. 옥황상제와 딸들의 시름이 깊어질 무렵, 한 노파가 나타나서 말했다.

“그 병은 약으로는 나을 수 없어요. 신비한 샘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옥황상제는 대체 그 샘물이 어디에 있는냐고 노파에게 되물었다.

“저 아래, 땅의 세상에 인간들은 미처 모르는 신비한 샘물이 있습니다.”

마침 계절은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한 겨울, 옥황상제와 딸들은 샘을 찾아 나섰다. 오랜 시간 끝에 땅의 세상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샘으로 가는 길을 정해져 있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샘으로 가는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보름달이 뜨길 기다리던 딸들은 두레박을 타고 땅의 샘으로 가 물에 몸을 담갔다. 거짓말처럼 자신들을 괴롭힌 피부의 병이 말끔히 사라졌다.

하지만 지나치면 안하느니 못하다. 욕심은 또 다른 화를 부르는 법. 일곱 딸 중 유독 욕심이 많

은 막내는 언니들보다 더 빨리 몸이 낫기를 바랐다. 샘에서 목욕을 하면 더 예뻐질 거라고 믿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샘에 갈 수 있고, 동이 뜨기 전에 하늘로 돌아와야 한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혼자 샘을 다녀온 막내의 행동은 금방 들통 나고 말았다.

화가 난 옥황상제는 “샘물은 땅과 하늘 세상이 서로 욕심 없이 조화를 이뤄 생긴 신비한 물이지만 막내가 욕심을 부렸으니 더 이상 하늘의 사람들은 샘으로 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 때부터 딸들은 샘을 이용할 수 없었다. 샘은 오직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몫이 됐다. 피부병을 앓던 많은 이들이 샘으로 찾아왔다. 그 물에 목욕을 하면 말끔히 나았다. 아파한 많은 이들을 치유하며 신비한 효험을 보인 곳, 바로 두리샘이다.

●‘신비한 물’ 사실은…

중촌마을 두리샘은 윗샘과 아랫샘으로 나뉘어 있다. 마을 중턱에 있는 윗샘이 오랜 기간 상수원 역할을 했다며 마을 입구 근처에 있는 아랫샘은 빨래터로 사용됐고, 때때로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수풀에 싸여 형체만 겨우 남았지만, 그 주변은 여전히 촉촉한 물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중촌마을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두리샘에 얽힌 추억 하나씩은 있다. 마을에서 농사일에 한창이던 주민 박일권(48) 씨도 그렇다. 그는 마을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아랫샘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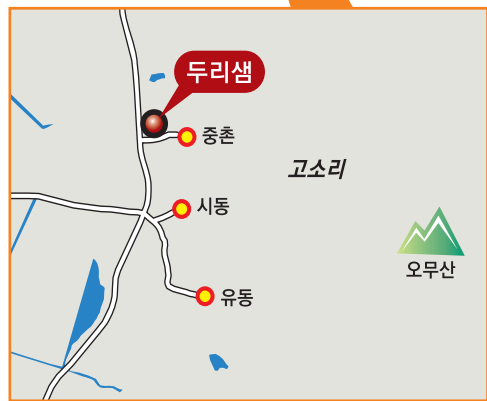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두리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 고흥군에는 마을마다 샘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다. 두리샘도 그 중 하나이고, 다만 윗샘과 아랫샘으로 나뉘어 있어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설화에서 두리샘은 병을 치료하는 물이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물이라고 전해져 내려온다. 무엇보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내뿜는다는 전설은 두리샘을 더욱 신비롭게 한다.

박일권 씨는 “지하에서 올라온 샘물이라서 여름과 겨울의 물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느냐. 수도관이 놓이고부터는 샘물을 이용하지 않아서인지 요즘에는 거의 말라버려 안타깝기도 하다”고 했다.

※설화 참조 및 인용: ‘두리샘 이야기’ 김미성, ‘고흥군 설화 동화’ 중

고흥 |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숲을 본 타이거즈, 선수육성 프로그램 빛 보다



Sports & Medical Story

문영래 KIA 타이거즈 필드코치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메디컬 체크 통해 신인·군·제대 선수 관리
혜택 본 김선빈·안치홍 등 KIA 우승 기여

지난 9월 11일,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2018 KBO리그 신인 2차 지명을 통해 각 팀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들을 선택했다.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프로무대에서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가에 각 팀이 꿈꾸는 미래가 달랐다.

아마추어 신인선수가 풀 시즌을 소화하는 프로선수처럼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3~4시즌이 걸린다고 한다. 신인들은 체력적인 약점 탓에 부상을 쉽게 당해 체력향상 및 부상방지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실정이다. 아마추어 때는 전문 트레이너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았다가 프로에 입단해 구단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으로 배운 체력훈련과 기술 훈련은 프로에 적응해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KIA 타이거즈는 신인뿐만 아니라 군·제대 선수, 트레이드 된 선수들에게도 육성선수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의 1위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강팀이 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육성선수 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일단 신인선수와 군·제대 선수, 트레이드 된 선수가 합류하면 기본적으로 메디컬 체크를 한다. 이전 부상 부위나 현재 불편한 부위 등 문진을 통해 차트를 만들고 주요관절 영상촬영과 검진을 한다. 이후 재활센터에서 인바디, 주요 관절근력 검사, 무산소성 파워 검사, 밸런스 검사를 해 트레이너가 결과를 도출하면 센터장이 선수간의 체력적 차이를 고려해 개인 별로 특화된 체력훈련과 기술훈련 진행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고 있다.

신인선수들은 약 8주간 체력훈련을 거친 다음에야 기술훈련에 들어간다.

군·제대 선수들은 4km 달리기, 인바디로 체지방량 측정, 윗몸 일으키기로 기초 체력 테스트를 받는다. 매달 근력, 무산소성 파워 검사, 밸런스, 인바디를 재평가해 체력향상 정도를 체크하고 1,2,3군 합류 전에도 같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육성선수 프로그램을 거쳐서 빛을 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키스톤 콤비 김선빈~안치홍, 투수 임기영이다. 제대선수 김선빈은 이 덕분에 프로데뷔 10년 만에 타격왕에 올랐고 안치홍도 타율 0.316 21홈런 93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통합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임기영은 올해 처음 선발투수로 1군에 올라와서 시즌 8승6패 평균자책점 3.65를 기록했고 한국시리즈 운명을 가를 4차전에서 승리투수로 우승에 큰 인פק트를 줬다. 유망주 투수들 팀의 에이스로 만들고 두터운 선수층을 확보하려는 꿈을 가지고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KIA 타이거즈에게는 통산 11번 우승의 과거보다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2017시즌 KBO리그 통합우승팀 KIA 타이거즈는 육성선수 관리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인 뿐 아니라 군·제대 선수,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까지 포함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 선수의 성장과 밝은 미래를 이끌어내고 있다. 육성선수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군·제대 이후에도 기량이 전혀 녹슬지 않고 탄탄한 몸으로 KIA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의 주역이 된 키스톤 콤비 김선빈(사진 왼쪽)과 안치홍.

스포츠동아DB